

# -으니까/니까

This grammar pattern is used to show the discovery or realization of someone after the action has happened. It is used at the end of a verb, and the subject in the first clause is a first person, while the subject in the second clause is usually a third person.

- 밖을 보니까 비가 오고 있었어요. (When I looked outside, it was raining.)
- 셔츠를 입어 보니까 좀 작았어요. (When I wore the shirts, it was a little small.)

※ '-으니까/니까'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.

- |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
| 1. 집에 가다     | · | · 영화는 이미 끝났어요.  |
| 2. 다시 생각해 보다 | · | · 아무도 없었어요.     |
| 3. 먹어 보다     | · | · 참 친절한 사람이었어요. |
| 4. 도착하다      | · | · 별로 안 매웠어요.    |
| 5. 그 사람을 만나다 | · | ·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 |

1. \_\_\_\_\_.
2. \_\_\_\_\_.
3. \_\_\_\_\_.
4. \_\_\_\_\_.
5. \_\_\_\_\_.



※ '-으니까/니까'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만드세요.

지하철역에 가다   시계를 보다   열어 보다   지갑을 열어 보다   나오다   식당에 가다

아침에 일어나서 1. \_\_\_\_\_ 7시였어요. 배가 너무 고파서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 
2. \_\_\_\_\_ 먹을 게 없었어요.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. 3. \_\_\_\_\_  
손님이 저밖에 없었어요. 아침을 먹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4. \_\_\_\_\_ 돈이 없었어요. 식당  
아주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열린 집으로 달려가서 지갑을 가져 왔어요. 계산하고 식당 밖으로  
5. \_\_\_\_\_ 출근하는 회사원들,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.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  
입고 밖으로 나왔어요. 지하철을 타러 6. \_\_\_\_\_ 사고 때문에 1시간 동안 지하철이 안 올 거라고  
했어요.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.

# 답

※ '-으니까/니까'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.

1.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.
2.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.
3. 먹어 보니까 별로 안 매웠어요.
4. 극장에 도착하니까 영화는 이미 끝났어요.
5. 그 사람을 만나니까 참 친절한 사람이었어요.

※ '-으니까/니까'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만드세요.

1. 시계를 보니까
2. 열어 보니까
3. 식당에 가 보니까
4. 지갑을 열어 보니까
5. 나오니까
6. 지하철역에 가니까